전남도, 친환경농업 실천 '세계로! 미래로!'

김영록 지사 "사람·환경 중심 친환경농업 육성할 터"

전라남도는 지난, 18일 '전남 친환경농업,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친환경농업 다짐대회'를 갖고 친환경농업인들과 적극적인 실천을 결의했다고 전했다.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비롯 김성일 도의회 부의장 및 도의원, 유관기관, 친환경농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펼쳐졌다고 전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랜선 방식을 도입, 22개 시·군 300여 명의 친환경농업인들이 화상으로 참여했으며, 3만 여명의 친환경농업인이 유튜브로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한다.

이날 행사는 친환경농업 인트로 영상과 함께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외길을 걷고 있는 친환경농업인의 삶을 그린 '그 어려운 걸 해낸 우리들'이란 제목의 영상으로 시작됐고, 미래세대가 살아가기 위한 환경생태계 보존을 위해 친환경농업을 잘 이어가자는 메시지를 전해 눈길을 끌었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의 축하 영상메시지와 친환경농업대상 우수 시군·농업인 시상, 노상현 유기농 명인의 성공사례 발표. 친환경농업 실천다짐 결의 등 순으로 진행됐으며, 시상에는 친환경농업의 어려움을 함께한 배우자와 가족도 참여해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도 전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특히, 친환경농업 실천 다짐에는 청년 여성농인 대표를 비롯 6명이 '친환경농산물 소득 창출 선도, 유기농산물 생산·가공수출로 돈 버는 농업' 등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낭독하고, 참석자 전원이 "전남 친환경농업,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미래로!"를 외치며, 친환경농업 실천 결의를 다졌고, 또 유기농부들의 마음이 담긴 '별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감동의 시간이었다고한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전라남도가 친환경농업 육성 후 역대 처음으로 유기농 인증면적이 무농약 인증면적을 넘어섰다"며 ,"이로써 친환경농업 내실화의 터닝포인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특히 "우보만리(牛步萬里)의 마음으로 사람과 환경이 중심이 되는 친환경농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전남 친환경농업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연화기자

장흥군, 녹화 경관 개선 본격 착수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화 경관 제공 계획

장흥군은 올해 약 9억 원의 예산으로 푸른숲가꾸기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탐진강변 등 관내에 산재한 가로수 및 가로화단을 관리하여 군민들은 물론 방문객들에게도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화 경관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입춘을 맞아 지역 내 도시 숲과 정원, 가로수 등을 정비해 아름답고 쾌적한 녹화 경관 개선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푸른숲가꾸기팀' 인력을 활용하여 올해 새로 신축한 전남지역소방본부 도로변에 산재한 개나리 정비와 덩굴류 제거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정종순 장흥군수는 "푸른숲가꾸기팀이 전남지역소방본부 도로변의 덩굴류 제거 작업을 실시하여 개나리, 철쭉 등의 생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며, "녹화 경관 개선을 점차 확대 시행하여 장흥군의 아름다운 가로 경관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김용만 기자

장흥군, 축산분뇨 처리 방식 변경 축산환경 조성 앞장

개별 퇴비사 처리→일괄처리 방식으로 변경
가축분뇨 친환경공동발효센터 건립 곧 추진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축산분뇨의 처리 방식을 개별 퇴비사 처리에서 일괄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환하여 보다 깨끗한 축산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립되는 가축분뇨 친환경 공동발효센터는 지난해 6월 공모를 거쳐 지난달 18일 최종 확정됐다고 전했다.

가축분뇨 친환경 공동발효센터는 총 사업비 20억 원이 소요되며 부지 7,500㎡(2,268평)에 시설물 2,315㎡(708평)과 각종 기계 장비 구입으로 1일 우분 80톤 처리 능력을 갖추게 되며, 가축분뇨 친환경 공동발효센터가 완공되면 개별 축산농가 가축분뇨의 수거 처리로 생활환경 보전은 물론 수질 오염을 크게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축산농가의 부숙도 검사 비용과 분뇨 처리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된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농지에 환원함으로써 지역 친환경 농업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깨끗한 축산환경이 중요시되고 퇴비 부숙도 기준 의무화(2020. 3. 25.)가 시행된 만큼,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친환경 공동 발효센터를 건립을 추진하겠다"며, "분뇨 미수거로 인한 악취 민원 예방과 친환경 축사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양시, 2021 은퇴자 활력도시 계획시행 발표

4개 분야 48개 사업 추진, 고령화 인구문제 극복

광양시가 5060 은퇴자 지원을 위한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추진할 '2021 은퇴자 활력도시 프로젝트'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2019년부터 시행된 '은퇴자 활력도시 프로젝트 사업'은 은퇴 고령자들이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성공적으로 지역에 정착하도록 도움을 주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이라고 전했다.

이에 철강과 항만산업이 주축인 광양시는 지역 산업구조의 특성상 숙련된 기술자와 고소득 종사자가 많은 도시로, 새로운 일자리와 재능기부 등에 관심이 많은 은퇴자가 매년 약 2,800명씩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재취업·창업 ▲귀농·귀촌 ▲사회공헌 활동 ▲평생학습 등 4개 분야 관련 48개 세부사업을 추진해 은퇴자의 '활력 있는 노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취업·창업' 분야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은퇴자 공동체 관광두레사업 참여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등 은퇴자 기술 및 경험과 아이디어를 연계해 20개 사업을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귀농·귀촌' 지원사업은 △부암지구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지원사업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을 실시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 '사회공헌 활동' 분야와 관련해서 △광양시 은퇴재능봉사단 운영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 도립미술관 도슨트(전문안내인) 양성교육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운영 등 은퇴자 경력을 활용한 13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평생학습' 지원사업은 지역주민 사회교육에 역점을 두고, 은퇴자의 특성에 맞도록 △인생 2모작을 위한 평생교육 △후진학 혁신지원사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공유' 플랫폼 운영 등 4개의 특화된 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별도의 TF팀 회의를 통해 은퇴자 지원 방향을 구체화해 부서간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행력을 제고하고 사업시행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확보 등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백정일 기자

전남도, 내년 '국고 8조원' 확보 시동

131건, 국비 6천억 규모 신규사업 발굴

전라남도는 18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주재로 국고건의 신규사업 보고회를 개최하고 131건에 국비 6천여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발굴했다.

이날 발굴된 사업들은 도정 핵심시책인 블루 이코노미 및 도정 목표 8대 추진전략을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특히 전라남도는 계속사업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대규모 국책사업, 공모사업 등을 포함해 내년 8조원 이상의 국고 확보 목표로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단계별 국고확보 활동을 펼치기로 하고 우선 3~5월 중앙부처 사업 반영과 함께 6~8월 기획재정부 설명, 9~12월은 국회 방문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혁신성장 산업 육성과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대용량 수전해 스택(3MW) 개발 및 그린수소 실증(45억원)을 비롯 해상에너지 통합관리 디지털 플랫폼 개발 및 실증(40억원), 백신면역중심 마이크로바이옴 의약소재 상용화 생태계 조성(30억원), 미래형 플라잉카 핵심부품육성 기반구축사업(90억원) 등을 확보키로 했다.

전남 관광·문화자원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는 코스탈 선샤인 로드 구축(800억원)과 국가 섬·바다 디지털 정원 조성(1천 800억원), 신안 압해~목포 율도·달리도~해남 화원 국도77호선 연결도로 개설(계속, 600억원), 여수 화태~백야 국도77호선 연결도로 개설(계속, 600억원) 등이 선정됐다.

지역 핵심 SOC 확충과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해 전라선고속철도 건설(국가계획반영)과 광주~완도 2단계, 광주~고흥 고속도로(국가계획반영),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 완공(계속, 4천 240억원),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계속, 297억원) 등을 확보키로 했다.

농축어가 소득향상을 통한 살고 싶은 농산어촌 조성 사업으로는 친환경 축산 융·복합 관광랜드 조성(35억원)과 함께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50억원), 국립 김산업 연구소 건립(30억원),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계속, 856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정책 강화를 위해 통합의료 헬스케어 타운 조성(10억원)과 노인·장애인 응급 통합돌봄센터 구축(25억원), 요양시설·요양병원 비대면 영상면회실 구축(5억원) 등 확보에도 중점을 둔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도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 신성장 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크고 도민 삶의 질을 개선할수 있는 알찬 사업들을 발굴, 반영시켜야 한다"며 "우보만리(牛步萬里)의 마음으로 우직한 소처럼 열심히 활동해 반드시 국고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난해 전년대비 6.6% 증가한 7조 6천 671억원의 국고 예산을 확보한바 있다.

/이연화 기자

민·관 합동으로 광양제철소 대기환경 개선

오는 25일 광양제철소 대기환경 공정개선 확인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광양시의회, 광양시 지속가능한 환경협의회, 전라남도 관계자와 함께 광양제철소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실적과 향후 개선계획 등을 확인한다고 전했다.2019년에 발생했던 고로 브리더 휴풍 작업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세미브리더 개선사항, 대기환경 개선 공동협의체에서 최종 확정한 개선계획 진행사항과 비산먼지 행정처분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정일 기자